

在日 제주인과 제주도*

유 철 인**

1. 밀항자

在日濟州人の 역사는 1922년 10월 君代丸(기미가요마루)의 취항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君代丸은 제주읍의 산지항을 기점으로 하여, 조천, 김녕, 성산포, 표선, 서귀포, 고산, 한림, 애월 포구 등 제주도를 한바퀴 돌아, 下關(시모노세키)를 거쳐 大阪(오사카)까지 운항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간 제주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육지사람이 제주사람을 차별하니까 이왕 차별을 받을 바에는 일본에서 돈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고,¹⁾ 당시 제주도에 가봐야 먹고살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순한 살의 靑田(아오타)씨는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가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귀향을 하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를 했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제주사람들은 제주도와 大阪을 마치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주 왔다갔다하였다. 大阪에 살던 제주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주택사정이 열악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자식을 고향에 있는 부모나 친척에게 수년간 맡겨놓는 일이 제법 많았다(이문용 1989: 82).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제주도에서 수년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해방이 되기 전 제주도에 살던 자식들은 해방이 되자 일본에 살고 있는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부모와 가족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을 하였다. 또한 친척이나 친지가 있는 일본으로 살길을 찾아 밀항하는 사람도 많았다. 밀항한 제주사람들의 뿌리는 일제시대에 君代丸을 타고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다.

靑田씨는 1938년에 일본 大阪에서 출생하여, 조부모 및 부모와 함께 살았다. 대동아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다섯 살 때인 1942년에 그는 화북(현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증조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스무 살 때인

* 이 글의 일부는 제주학회 제13차 전국학술발표대회(1997년 11월 14~15일, 제주대)에서 발표되었다. 이 글의 자료는 일본 문부성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받은 「在日코리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동태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연구대표자: 일본 富山大學 飯田剛史 교수, 연구기간: 1995. 4-1998. 3)와 일본 산토리 문화재단 연구조성비를 받은 「한국·제주도출신자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관한 학제적 연구」(연구대표자: 제주대 유철인, 연구기간: 1997. 6-1999. 5)를 수행하기 위한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것이다. 공동연구를 가능케 한 飯田剛史 교수와 일본 방송대학의 原尻英樹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대 교수·인류학

1) 제주사회에서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의 구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유철인(1986)의 연구가 참고가 되고, 이러한 구분이 在日濟州人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原尻英樹(1996)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1957년에 여수에서 고철무역선을 타고 부모가 있는 일본 大阪으로 밀항을 하였다. 그는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인 회사의 연구소에서 30여년 간 일하고 있다.

제주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大阪市 生野(이쿠노)區에서,²⁾ 식당 겸 주점의 형태인 일본식 居酒屋(이자가야)에서 제주음식과 한국음식을 14년째 팔고 있는 마흔아홉 살의 張씨 역시 일본에 있는 부모를 찾아 밀항한 사람이다. 그녀는 1950년에 어머니의 고향인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에서 출생하였다.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가 고향인 그녀의 아버지는 1920년에 渡日하여 그녀가 출생할 당시 東京에 살고 있었다.³⁾ 그녀의 어머니마저 일본으로 밀항하자, 막내인 그녀는 제주시에 사는 언니네 집에서 살았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일본에 있는 부모가 오라고 해서 그녀는 밀항을 하였다. 그때가 열네 살 때(1963년)였다.

大阪市 生野區에서 가내 하청 공장을 운영하는 쉰한 살의 吳씨도 일본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 밀항한 사람이다. 그는 모슬포에서 1948년에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하자마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부산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다가, 그가 열 살 때(1957년), 일본에 사는 큰 할아버지 곁에 가면 생활이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갔다. 따라서 그는 해녀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일본에 간 어머니는 처음에는 외삼촌들도 살고 있는 仙台(센다이)에서 살았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어머니는 밀항을 알선하는 브로커(broker)들이 많은 大阪으로 이주하였다. 맨 처음 부탁한 브로커에게는 돈만 때이기도 하였다.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東京올림픽 때(1968년) 그는 무역선을 타고 밀항을 하였다.

예순한 살인 德川(도쿠가와)씨는 1938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였다. 그의 가족은 해방 후에 귀향을 하여, 그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다녔다. 제주 4·3의 핵심 주동인물이 그의 외삼촌이어서, “빨갱이”라고 지목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1957년에 “죽어도 이 더러운 나라에는 안 들어온다”고 결심을 하고 밀항을 감행하였다.

德川씨는 조총련계 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몇 개월간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가 밀항한 당시에는 교포의 70-80%가 조총련 소속이었다. 수업시간에 김일성 찬가 대신에 미국민요를 가르쳤다고 사상문제가 제기되어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심정은 밀항 당시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북이고 이남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귀국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1962년에 일본여자와 결혼을 하였다. 현재 건물임대업과 금융업을 大阪과 부산과 제주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중 보통 1주일 정도는 한국에 체류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제주도에서 밀항한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쉰 살인 金씨는 1949년에 제주시 삼양동에서 태어났다. 군대를 제대한 후인 스물다섯 살 때(1973년), 부산에서 밀항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제주도로 귀환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첫번째 부인을 일본에서 만나,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2) 大阪市 生野區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 대한 연구로는 이광규(1983)와 이문웅(1988, 1989)의 연구가 있다.

3) 그녀 아버지의 성명을 在日本高内里親睦會가 펴낸 「1990年版 會員名簿, 沿革及行事錄」이라는 책자의 연혁 항목에서 찾을 수 있어서 그녀 아버지가 도일한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서 태어난 5남매는 모두가 일본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다. 그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배다른 두 번째 형은 밀항을 하여 大阪에서 살다가 단속에 걸렸었다. 사촌고모가 조총련 “백”으로 형을 고모의 친아들이라고 해서 빼냈다. 그가 밀항할 당시, 형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귀화를 한 후였다.

金씨의 밀항은 앞에서 소개한 사람들처럼 가족이 재결합하기 위해서나 4·3의 영향을 피해 밀항한 사람들 같은 절박감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군대생활을 부산항 근처에서 하였는데, 시내에 나오게 되면 제주도행 여객선의 출발시간에 맞추어 대합실에 자주 가곤 하였다. 하루는 그곳에서 삼양으로 시집온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자기는 밀항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라는 것이다. 제대한 후의 진로가 불확실하던 차에 이모와 고향 선배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나 가자고, 브로커에게 미리 돈을 주고 기다리다 밀항선을 탔다. 여러 가지 일을 한 후, 1989년부터 민단의 상근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1995년 당시 제주도에 이장을 보고 있던 신두 살의 차씨는 스물일곱 살 때인 1973년에 밀항을 하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결혼을 하였다. 부인과 장녀를 고향에 두고, 그는 여수에서 냉동 생선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을 타고 밀항을 하여 大阪에 갔다. 밀항할 당시, 현재는 사망한 그의 형이 東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大阪에 살고 있던 큰동서를 찾아갔다. 교포의 가내공장에서 10년간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는 오무라 수용소에서 2개월간 있다 귀향하였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10년간 고향을 한번도 방문할 수 없었다.

2. 밀항과 정착과정

밀항자들은 보통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연결고리 인구이동(chain migration)은 비단 제주도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960·1970년대에 대규모로 나타났던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하는 경우나 1970년대 활발하게 나타났던 미국으로의 이민도 같은 양상을 띠었다.⁴⁾ 제주도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1세대 먼저 밀항한 사람의 뒤를 따라 밀항이 계속되었다. 밀항을 하여 합법적으로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은 밀항과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밀항자의 존재에 대해 조사자인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金씨는 자기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무엇이나”고 물으니, “밀항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몇 년이 지나면 괜찮은 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자, “15년이다. 나는 밀항 온 지 2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부산항에서 만난 밀항알선자에게 비용을 미리 주었다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이야기만을 했었고, 밀항 당시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밀항 당시의 이야기는 자기의 경우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

4) 한국인의 미국이민 과정에 나타난 연결고리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Light & Bonacich (1988)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았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본에 왔느냐고 서로 묻지는 않지만, 밀항세대 사이에서는 밀항에 대한 무용담이 회자되는 모양이었다. 靑田씨는 1957년에 고철무역선을 타고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선실과 선실사이에 조그마한 빈 공간에 오줌을 누라고 준 강통 하나를 가지고 왔다. 대변을 그곳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무역선을 타기 전날 하루 동안은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밤에 타서 다음날 밤에 도착하였는데, 한국 해경이 검문을 3번 했고, 일본 해경이 2번 검문을 하였다. 검문을 하면서 선실과 선실 사이에 공간이 없나 해서 벽을 두드리면, 공간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두 손을 벽에 대어, 벽이 울리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선실 벽을 칼로 찌르기 때문에 죽은 밀항자도 있었다. 당시 한일간에는 공식적인 무역은 없었지만, 일본경제가 한창 일어날 때라 고철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고철을 많이 팔았다.”

밀항할 때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은 張씨였다. 그녀는 국민학교만을 졸업한 어린 나이에 2년에 걸쳐 세 번만에 밀항에 성공하였다. 세 번 모두 하루만에 일본에 도착하기는 했었다고 한다. 충무에서도 타고 마산 앞의 어느 섬에서도 탔는데 어디에서 탄 것이 성공을 했는지는 헷갈린다고 말하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居酒屋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그러다가 마침 TV 뉴스에서 중국인들이 밀항을 하다 발각되는 장면이 나오자 자기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다.

처음 밀항을 했을 때에는 한 20명 정도 같이 타고 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몇 개월 있다가 이번에는 한 50명 정도 같이 타고 밀항을 하여, 大島(오오시마)라는 섬인가에 도착하였다. 주변에 섬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 나중에 언니들한테 들으니까, 일본사람이 ‘조선 돼지 몇 마리 실었느냐’고 말하더라. 발각이 되자 남녀가 짝을 지어 도망을 가라고 해서 어느 절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차를 먹으라고 해놓고는 전화로 신고를 했다. 한국사람 같으면, 차를 먹으라고 할 정도이면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오무라 수용소에 갔다. 당시 어머니는 (외국인) 등록이 없어서 외삼촌과 외숙모가 면회를 왔었다. 그때 나보다 몇 달 어린 아이에게는 우유와 빵을 주었는데, 나는 몇 달 차이로 받아먹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부산 계정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큰언니가 애를 업은 채 데리러 와서 ‘고생했다’ 하면서 울었다. 그 애를 큰언니가 뺐을 때 처음 밀항을 시도했다가 그 애가 몇 살 때인가 밀항에 성공했다. 그 때도 나는 안가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또 보냈다.” 그녀는 울면서 일본에 왔지만, 병이나 차 사고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왔다고 한다.

밀항자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본에 살게 되었을까.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느라 고생한 각자의 이야기는 밀항할 때의 고생담보다 더 처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밀항자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 대개 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밀고를 하면 체포를 한다”는 이야기에서 많은 밀항자들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개 1층이 작업장이고 2층이 침실인 가내공장에서 기숙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제출국을 당한朴씨의 표현을 빌리면,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같은 존재이다.

1973년에 밀항을 하여 2년간 東大阪(히가시오사카)에서 제주사람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

장에서 일하던 金씨는 그후 철공소를 다닌다. 플라스틱 공장은 生野區의 鶴橋(쓰루하시)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철공소는 플라스틱 공장보다 월급은 작았으나 生野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이라 철공소로 옮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밀항자가 많았기 때문에 검문이 심했다. 또 누가 밀고하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生野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결국 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1983년에 결혼을 하였고, 그해 10월말에 결혼 전 살던 곳으로 서울에서 친구가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발각되었다. 20일간 오사카 법무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용소에 있다가 부인과 자식이 있으니까 11월에 풀려 나왔다. 호적등본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다음 해 1월에 등록을 하였다. 그는 등록이 없을 때에는 쫓기는 꿈을 많이 꾸었다고 한다.

밀항이 한창 많을 때인 1970년대 초에 밀항을 와서 한 20년 됐다는 한 아주머니는 2세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야 등록을 만들었다고 한다. 학교에 가려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한다. “일본 입장에서 부인과 자녀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면, 세금을 내는 남편이 일본생활에 전념을 못하니까 등록증을 준다. 남자보다 여자가 등록증을 얻는데 유리하지만, 결혼해서 자수해도 몇 년 안된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출생했다는 출생신고서는 있었지만, 德川씨는 1957년에 밀항한 후 돈이 없어서 등록증을 못 만들었다. 당시에 주택 한 채 가격인 200만 엔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1962년에 일본여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뭇씨 역시 결혼을 통해 등록증을 만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 1대에 2명이 타고 가다 순경한테 잡혀 발각되었다. “고향에서는 2명이 타도 괜찮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줄을 몰랐었다”고 한다. 그는 보통 入關이라고 불리는 법무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용소에서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단식투쟁을 하였다. 결국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1개월 짜리 임시 체류허가를 받아냈다. 매달 入關에 가서 임시허가를 연장하면서 결혼 때까지 버텼다고 한다. 일본사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에만 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일본 변호사의 충고를 따라 그는 14번째 선을 본 2세와 결혼을 하였다.

3. '在日'사회에서의 밀항자라는 존재

일본사회에서 사용되는 '在日'이라는 용어는 현재는 보통 국적을 밝혀서 표기된 '在日韓國·朝鮮人'을 가리킨다. 일제시대에 한반도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귀향을 하지 않자,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에는 아직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국적이 없는 '재일'이 되어버렸다.⁵⁾ 그러다가 남북한에 국가가 성립되자, 국적

5) 김주희는 '在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필자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在日韓人을 가리키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념적 내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정치 않다. 조총련계의 '재일조선인', 민단계의 '재일한국인', 중립계의 '재일한국조선인' 등이 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분단 조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북한도 남한도 아닌 제3의 독자적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구하고자 젊은 3세들이 쓰기 시작한 '재일'이라는 용어가 있다”(1994:85).

이 아닌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여, '在日朝鮮人'(原尻英樹 1996), '在日코리안', '在日韓人'(김주희 1994)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해방 전에 독일한 사람이나 해방 후에 밀항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보통 '在日同胞' 혹은 '在日僑胞'라고 부른다.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다분히 민족적 감상주의가 배어 들어간 말로 보인다. 미국의 한인올 주로 연구한 윤인진(1997)은 교포 또는 교민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민 1세를 지칭하고 본국과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2세나 3세를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신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계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동포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포라는 말도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는 혈통에 기반한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나 생활양식에서 단일민족국가인 본국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현상 내지는 편견, 혹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하고 있다.

'재일'사회에서는 재일동포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앞서 소개한 金씨는 "밀항자들은 재일동포도 아니고, 본국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金씨는 "육지 출신"인 조사자인 나에게 제주도에 몇 년 살았느냐고 물으면서, 밀항자들의 일본생활은 나의 제주생활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자기가 23년을 살아도 해방 전에 독일한 1세와 그들의 자녀인 2세를 의미하는 "재일동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재일동포"는 토박이라는 말과 같다. "동포"들은 밀항자를 "밀항동이", 또는 "잠수함 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가 올림픽 이후 관광자유화가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서 놀러 왔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비행기 부대라 할 수 있다." 일본학자들은 이들을 '뉴카마'(newcomer)라고 부른다.

밀항자가 '재일'사회에서 수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소수'(invisible minority)의 존재라는 것은 재일동포의 역사를 서술하는 여러 글에서 나타난다. 제주도가 펴낸 『애향의 보람: 재일동포 기증실적』(1991:61-93)이라는 책에서도 '재일 제주도민들의 발자취'라는 항목에서 1세들의 독일과 그들의 해방 전까지의 생활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밀항자들은 일본사람보다 "동포"들한테 더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포들은 우리보고 못살아서 밀항 와 가지고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라는 식으로 밀항세대를 대한다는 것이다. 해방 전에 독일한 1세들의 생애에 관한 高鮮徽(1996)의 연구를 보면, 독일목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직업을 찾아 나선 경우가 20명 중 7명이었다. 따라서 1세나 2세들이 밀항세대를 무시할 때에는 독일전의 경제생활이 곤란했다는 것보다는 불법체류자였던 과거를 가졌다는 약점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단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밀항세대들이 간부직을 많이 맡고 있다. 1세들은 너무 연로하거나 사망하였고, 2세들은 한국과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민단의 일을 잘 맡지 않는다. 그러나 3세들은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밀항세대가 중심이 된 '재일'사회에서는 "어떻게 왔습니까"라는 질문을 서로 하지 않는다"고 金씨는 말한다. 이는 미군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들의 대부분이 기지촌 출신의 여성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는가를 묻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Yoo 1993 참조).

4. 在日 제주인 사회와 제주도의 관계

재일 제주인에게 제주도는 여전히 생활세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를 갔다 온 후에 밀항한 사람들에게는 일본에 살고 있어도 제주도가 여전히 의미 있는 생활세계이다. 앞서 소개한 뒤희와 같이 만났던 선여덟 살 정도의 高씨는 예월 출신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1962년에 마쳤다. 그후 결혼을 하였고, 아들 2명과 부인을 두고, 1968년도에 밀항을 하였다. 그때 東京 荒川(아라카와)區에 사촌형이 살아서 그곳에서 6개월간 살다 처형이 있는 大阪으로 왔다. 부인은 그가 일본에 온 지 5년인가 6년 후에 자식들은 제주도에 둔 채 밀항을 하였다. 막내인 셋째 아들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그는 生野區에서 전자동 세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난 다음 해에 다시 만났을 때, 동생과 아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뒤희는 가족이나 친척이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보라고 권하였다. 高씨는 자기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지 제주도에 알려지면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현재 사업을 몇몇하게 하고 있는 재일 제주인에게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족과 '괘당'(친척)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전히 중요한 생활세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

조사자인 나에게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의 역할을 해주었던 민단의 金씨가 "당신이 제주사람이면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깐 내가 도와준다"고 몇번씩 이야기했듯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일본에 친척이 한두명씩은 살고 있다. 더군다나 육지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에 비해 제주도 출신자들은 제주사회 전체의 차원과 마을의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고향과 훨씬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마을의 리사무소나 마을회관 앞에는 어김없이 재일교포 공로비가 세워져 있다.⁶⁾ 제주도의 새마을운동은 재일교포들의 고향마을 가꾸기 운동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40대 이상의 제주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일본에서 살거나 일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밀항은 1970년대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 때는 전국적으로 이농현상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이다. 완전히 이주하여 정착하거나 돈을 벌러 잠시 이주하거나 간에 육지의 농촌거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인근 도시나 서울 같은 대도시로 이농할 때, 제주사람들은 친척, 친구, 마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던 오사카나 도쿄로 이동한 것이다.

1998년 어버이날(5월 8일)에 선홀리에서는 동네 경로잔치가 열렸었다. 한 식탁에 앉아 있던 50대 남자 예닐곱 명이 음식을 먹으면서 일본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제의 초점은 현재 일본에서의 일당이 얼마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58세의 安씨는 "일본에서 처럼 여기서 일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1980년대에 장모와 처남이 살고 있는 일본에 6번 다녀왔다.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친척방문 비자를 받아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서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그는 한번 방문에 총 6개월간 일을 할

6) 濟州道가 1991년에 발행한 『애향의 보람: 재일 동포 기증실적』을 보면, 재일교포들이 기증한 실적(연도별/사업별)이 자세히 나와 있다.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제주사람들이 일본에서 힘든 “노가다” 일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엔화를 받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 제주도에서도 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일했을 당시의 외환 환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거론한 것은 일본에서는 그러한 막노동을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체면이 깎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들도 한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Yoo 1991).

이렇듯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정착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제주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일한 경험에는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상당수의 제주남자들의 경우, 밀항자나 일시체류자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야 무슨 일이든지 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고내리에 살고 있는 50대의 高씨는 “일본에 가기 전에는 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밭에서 농사일조차 하지 않고 마을에서 술이나 먹으면서 세월을 보냈었다. 당시 제주남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자들에게 의존하였다. 몇번 일본을 왔다갔다하는 동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난 일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1980년에 처음 도일하여 6개월간 일을 하였고, 그후 1987년까지 5번을 다녀왔다.

둘째, 제주사람들은 예전부터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를 일시적으로 떠나 일을 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제주해녀들은 일제시대 초기부터 한반도나 일본으로 소위 ‘出稼’라는 바깥물질을 다녔다. 해녀들은 일시적으로 섬 밖에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계절 임시노동자(seasonal casual laborer)들이다. 지금도 제주해녀들 중에는 3개월 체류허가가 나는 친척방문비자를 가지고, 심지어는 15일 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때때로 일본에서 물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정부의 해외자유화 방침에 따라 제주남자들과 해녀가 아닌 제주여자들도 일본에서 임시노동을 하게 된 것이다.

밀항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임시노동자 중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쓸 시간이 없고 일본어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앞서 소개한, 10년간 불법체류 끝에 돌아온 52살의 朴씨는 처음 몇해 동안에는 밀항자들이 돈을 쓰지 못하다가 일본어를 익히게 되면 돈을 쓰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고내리의 高씨도 제주도에서는 돈을 벌면 바로 쓰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일본을 다니면서 모은 목돈으로 감귤 밭을 한 정보 샀다. 감귤이 수확되면서 그는 더 이상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가족의 특성 때문에 육지사람에 비해 많은 제주사람들이 가족을 고향에 남겨두고 밀항자가 되어 일본에 가거나 임시노동을 위해 가족을 일시적으로 떠나 일본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육지가족에 비해 제주도 가족은 가족집단의 결속력이 약하다. 제주도 가족에 나타나는 개별주의는 가족형태와 결혼잔치나 장례식때 부조하는 관습에도 나타난다. 육지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부가족(핵가족)을 최소 생계단위로 만드는 가족제도(이기욱 1984: 179, 이창기 1992: 29)에 따라 장남가족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저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육지에서는 보통 가구주가 가족을 대표하여 부조를 하나, 제주도에서는 소위 '접부조'라고 일컫는, 관계가 있는 가족원 개인에게 각자 부조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다. 이는 생산이나 의례에서 노동력 동원과 교환의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의 사회조직의 기본요소가 성원권이 제한되고 배타적인 사회집단으로서의 친족집단이 아니라, '자기'(ego)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문화적 범주인 '켄당'이기(김창민 1995: 95-98) 때문이다.⁷⁾

제주도 가족의 약한 집단 결속력, 켄당에 나타난 자기중심주의 혹은 개별주의(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닌 제주사람도 '알고 보면 모두 켄당'이라는 사회관계의 포괄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족의 경제적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단으로서는 결속력이 약하나 범주로서는 포괄적인 제주사회구조의 특성이 제주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시 체류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겠다. 가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제주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닌 것이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족과 켄당으로 인해 제일 제주인에게 제주도는 고향 이상의 의미로 남아 있다. 또한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이라는 제주문화의 전통은(유철인 1986: 86) 제일 제주인 사회에서 다른 지방출신 제일교포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마을단위의 사회조직("在日本高内里親睦會", "東日本朝天里民會" 등)으로도 재창조되어 나타난다.⁸⁾ 반면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켄당과 마을사람이 살고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서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범주로서의 제일 제주인 사회와 제주도간의 각종 연결고리는 현재 제주도에서 '100만인 제주공동체'라는 말로 상징화되고 있다.

7) 마을내혼이 많이 이루어졌던 역사 속에서 제주도에서는 현재에도 실질적인 친족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모두 삼촌, 조케라는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마을이 지연 공동체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켄당 공동체로도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유철인 1993: 1259).

8)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만드는 향우회나 친목회를 보면, 제주사람들은 유독 자기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림읍 명월리의 경우, 제주시에는 넓게회가 조직되어 있다. 넓게회는 한림읍 명월리 中洞 출신의 제주시 거주자들의 친목회이다. 같은 명월리 출신이라도 上洞과 下洞 출신은 회원이 되지 못한다.

참 고 문 헌

- 김주희, 1994, "재일한인의 친족생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연구』 4: 85-108.
- 김창민,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서울: 집문당.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탐라문화』 5: 71-93.
- _____, 1993, "마을", 『제주도지』 2권: 1253-1271, 제주도.
- 윤인진, 1997,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민족관계: 미국에서의 한류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학』 31(가을호): 529-562.
- 이광규, 1983, 『재일한국인: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일조각.
- 이기욱, 1984, "도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1: 145-209, 제주도연구회.
- 이문웅, 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5: 51-58.
- _____, 1989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무속: 大阪 이꾸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6: 79-89.
-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 17-35, 제주도연구회.
- 제주도, 1991, 『애향의 보람: 재일동포 기증실적』.
- 高鮮徽, 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在日本高内里親睦會, 1990, 『會員名簿, 沿革及行事錄』.
- 原尻英樹, 1996, "日本敗戦後の在日朝鮮人: 濟州島人の生活史", 原尻英樹·六反田豊 編, 『半島と列島のくにくに』, Pp. 179-214, 東京: 新幹社.
- Light, Ivan, and Edna Bonacich,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oo, Chul-In, 1991, *Storytelling among Korean Immigrants: The Interplay of Reality, Experience, and Expression*. *Korea Journal* 31(2): 93-100.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_____, 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Is*.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박사학위논문.